

주요 내용

1. [한국인의 삶의 질]
65세 이상 독거 노인 수, 2000년 대비 3배 이상 증가!
2.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1) AI의 업무 대체 예상 분야
 - 2) 한국의 소득 양극화
3. [넘버즈 칼럼] 교회 성장을 예측할 수 있는 4가지 요소



목회데이터연구소

MINISTRY DATA INSTITUTE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65세 이상 독거 노인 수, 2000년 대비 3배 이상 증가!

일반적으로 GDP(국민 총생산)는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총량 지표이다. 하지만 '삶의 질'과 '사회 발전' 같은 GDP로 설명할 수 없는 지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국제적으로도 다양한 'Beyond GDP' 지표들이 개발, 발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4년부터 통계청 산하 통계개발원에서 건강, 여가, 가족·공동체 등 11개 영역의 71개 지표에서 우리 사회의 삶의 질 측정을 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국민 삶의 질' 보고서를 매해 발간하고 있다. 2022년 12월 말 발표된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 내용 중 목회자와 한국교회 리더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5개 영역(가족·공동체, 주관적 웰빙, 소득·소비·자산, 건강, 여가)을 선별하여 그 현황과 세계 속의 한국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삶의 질 71개 지표 중 개선된 지표는 52개로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삶의 질은 양호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중 노인의 삶은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만 할 정도로 좋지 못하다.

기대수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독거노인 비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의 빈곤율'은 OECD 국가 평균 대비 3배나 높은 1위이다. 또 다른 한국의 세계 1위가 바로 '자살률'인데 노인의 자살률은 전체 연령 평균을 훌쩍 상회할 정도이고, 노인의 여가생활 만족도는 전체 대비 2/3 수준이다.

이번 <넘버즈 187호>를 통해 한국 사회의 삶의 질 현황과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는 한편 교회가 개인 및 공동체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좀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어느 영역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 (국제기구) OECD Better Life Index, UN SDSN World Happiness Report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22 국민 삶의 질 지표 상황판

전체지표 최근 추세(2022년 12월 말 기준) ● 개선 52개, ● 악화 18개, ● 동일 1개



주 ① 2022년 12월 말 기준 작성된 자료이나, 지표의 시의성을 고려하여 2023년 1월 공표된 고용률·실업률·미세먼지 농도는 2022년 값이 반영되어 있음.
 ② *표시된 지표는 2년이상 주기 지표로 2022년에 통계가 공표되지 않아, 2021년 12월 기준과 동일
 ③ 개별 지표별 지표값 및 관련자료는 지표누리 홈페이지(index.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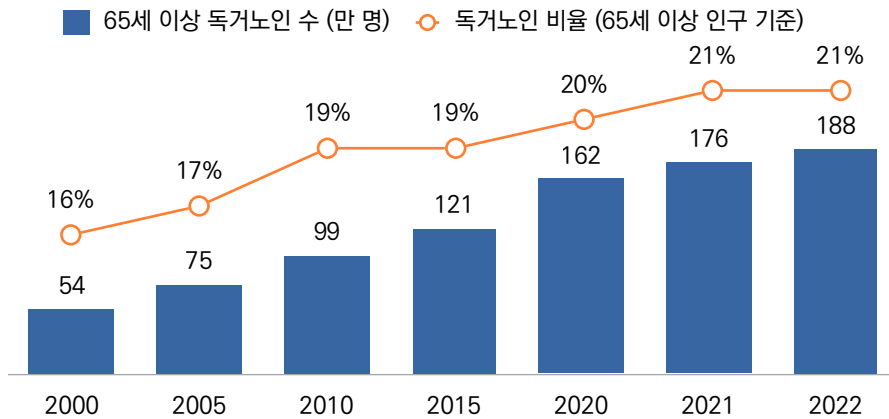
01

[한국인의 삶의 질 : 노인]

65세 이상 독거 노인 수, 2000년 대비 3배 이상 증가!

- ▶ 저출산, 고령화로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는 188만 명이며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2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5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은 혼자 사는 셈이다.
- ▶ 독거노인 수는 2022년 기준 2000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과 함께 고독사 방지를 위한 지역 사회 차원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 독거노인 수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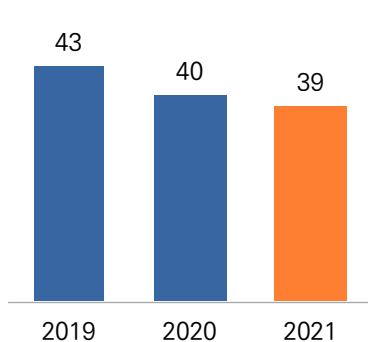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20~2050년, 2022.06.28.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2021.1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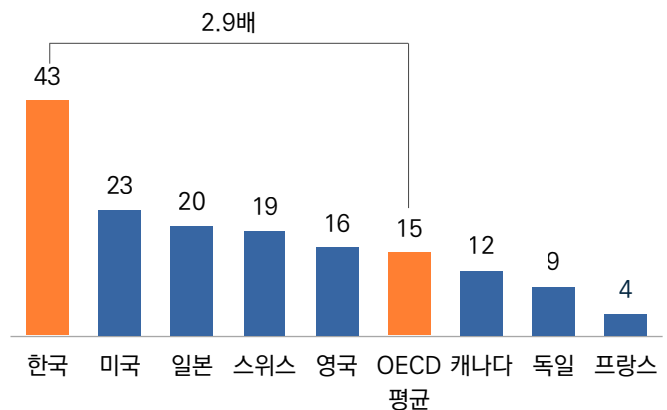
◎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노인빈곤율, 최고 수준!

- ▶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9년 43%에서 2021년 39%로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 OECD 평균(2019)인 15% 대비 3배 가까이 높은 최고 수준(1위)이다.
- ▶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 대비 거의 2배 정도 높은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

[그림] 은퇴연령층(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 (처분가능소득 기준, %)



[그림] OECD 주요국의 65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 (2019, %)



*자료 출처 : 통계청, 2022년 가계 금융복지조사 결과, 2022.12.01

**자료 출처 :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2021.08.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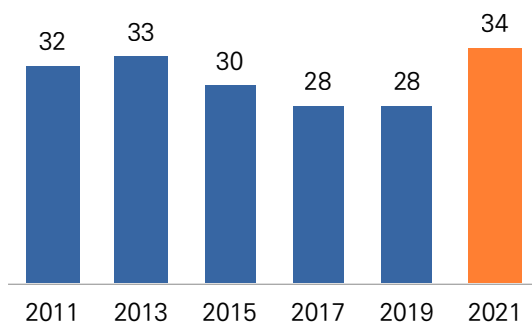
Note1. OECD 주요 국가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9년 기준

Note2. 용어설명)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상대 빈곤선) 이하인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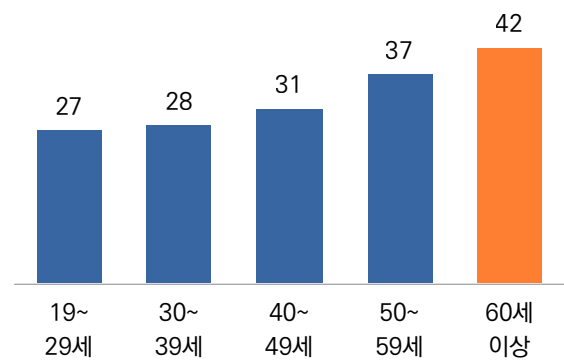
◎ 코로나 이후 사회적 고립도 악화, OECD 국가 중 상위권(4위)!

- ▶ 우리 사회의 사회적 관계망이 얼마나 촘촘하고 효율적인지를 알 수 있는 지표인 '사회적 고립도'는 '집안 일을 부탁할 경우',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에서 둘 중 하나라도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로 측정한다. 2021년 사회적 고립도는 34%로 2019년 28%에 비해 높아졌다. 2019년~2021년은 코로나 19로 대인 관계가 축소되고 제한됨에 따라 고립도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적 고립도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은 42%로 타연령층 대비 5~15%p 높아 상대적으로 인적, 정서적 도움을 받는 데 있어 취약함을 보여준다.
- ▶ 한국의 사회적 고립도는 OECD국가 38개국 중 4위를 차지하며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앞에서의 통계청의 사회적 고립도 지수와 OECD 한국지수가 각각 다른데 이는 OECD의 측정항목이 다른 데 기인함)

[그림] 사회적 고립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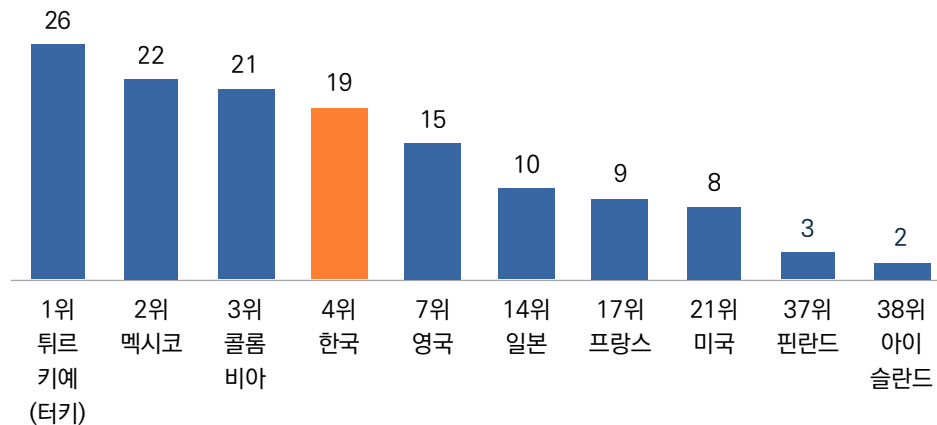


[그림] 연령별 사회적 고립도 (%)



[그림] OECD 주요국의 사회적 고립도**

(‘곤란한 상황에서 도움을 줄 사람이 없다’ 비율, 38개국 중 주요국, %)



*자료 출처 : 통계청, 2021년 사회조사 결과(복지, 사회참여,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2021.11.17

**자료 출처 : 한국일보, 한국 행복 수준 6점대로 올랐지만...사회적 고립도는 OECD 4위, 2023.2.26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22615410002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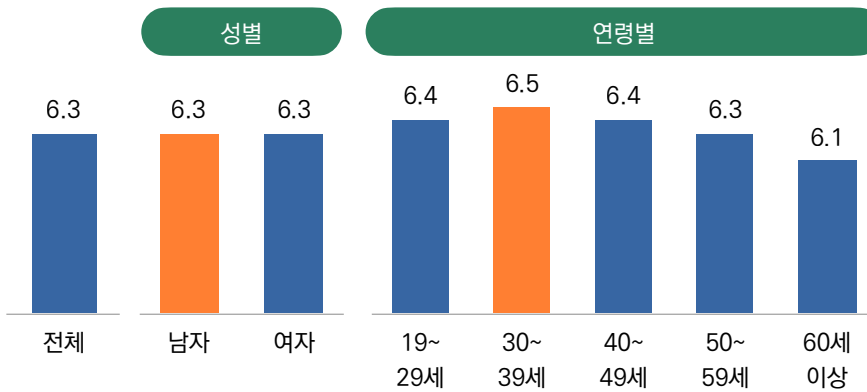
Note. 2021년 기준이되, 벨기에 2020년, 룩셈부르크는 2019년 기준임. 원자료는 갤럽월드폴임

02

[한국의 삶의 질 : 주관적 웰빙] 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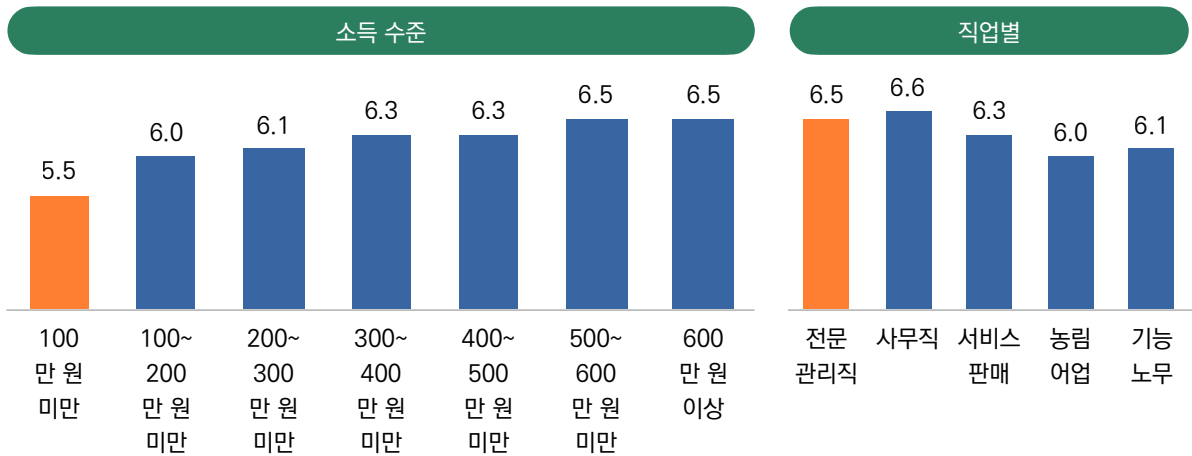
- ▶ 우리 국민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를 살펴본다. 0점에서 10점 척도로 측정되는 삶의 만족도는 2021년 6.3점으로 조사됐다. 남녀 모두 6.3점으로 성별 차이가 없었고, 연령별로는 30대 연령층을 정점으로 그 이후 연령이 높아가면서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추세를 보인다.
- ▶ 소득수준과 직업별로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사무직(6.6점)과 전문관리직(6.5점)이 타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그림] 성·연령별 삶의 만족도 (2021, 점/10점)



*자료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2022.03 (2021년 현재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8,077명, 면접조사와 자기 기입식 조사 병행, 2021.9.1~10.31)

[그림] 소득수준 직업별 삶의 만족도 (2021, 점/10점)



*자료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2022.03 (2021년 현재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8,077명, 면접조사와 자기 기입식 조사 병행, 2021.9.1~10.31)

◎ 한국 행복지수, OECD 38개국 중 최하위(35위)

- ▶ 최근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이 공개한 '2022 세계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38개 OECD 국가 중 한국의 행복지수(주관적 행복도)는 35위로 최하위권으로 조사됐다. OECD 국가 중 한국보다 행복도가 낮은 국가는 그리스, 콜롬비아, 튀르키예 3개국뿐이었다.

[표] OECD 행복지수 순위** (2020~2022 평균, 38개국)

국가	국가	국가
1. 핀란드	14. 아일랜드	27. 이탈리아
2. 덴마크	15. 미국	28. 칠레
3. 아이슬란드	16. 독일	29. 멕시코
4. 이스라엘	17. 벨기에	30. 폴란드
5. 네덜란드	18. 체코	31. 라트비아
6. 스웨덴	19. 영국	32. 일본
7. 노르웨이	20. 리투아니아	33. 헝가리
8. 스위스	21. 프랑스	34. 포르투갈
9. 룩셈부르크	22. 슬로베니아	35. 한국(세계 137개국 중 57위)
10. 뉴질랜드	23. 코스타리카	
11. 오스트리아	24. 슬로바키아	36. 그리스
12. 호주	25. 에스토니아	37. 콜롬비아
13. 캐나다	26. 스페인	38. 튀르키예(터키)

*자료 출처 :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2023 세계 행복보고서, 2023.03.20.

**총 137개국 중 OECD 38개국 순위를 기재

Note. OECD 평균은 자료 이용이 가능한 38개 국가의 가장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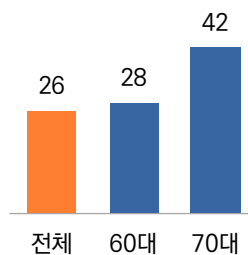
◎ 자살자 수 OECD평균의 2배 넘어

- ▶ 자살률의 경우 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6명으로 집계됐다. 한 해 동안 총 13,352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이를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37명꼴이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노인 자살률이 평균보다 훨씬 높아 고령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 ▶ 한편 OECD 38개국 가운데는 한국이 OECD 평균 자살률인 11명(인구 10만 명당)을 2배 이상 상회하며, 압도적인 1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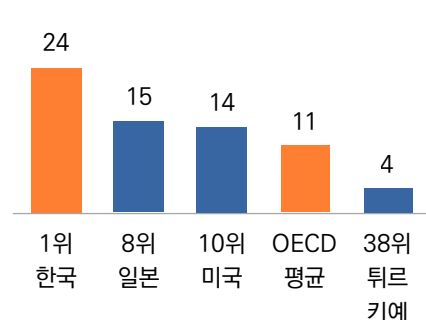
[그림] 우리나라 자살자 수 (2021)



[그림] 연령별 자살률 (2021, 10만 명당, 명)



[그림] OECD 주요 국가 연령표준화 자살률 비교 (인구 10만 명당, 명)



*자료 출처 : 통계청, 2021년 사망원인통계, 2022.09.27.

Note1. OECD.STAT, Health Status Data(2022.09 추출)

Note2. OECD 평균은 자료 이용이 가능한 38개 국가의 가장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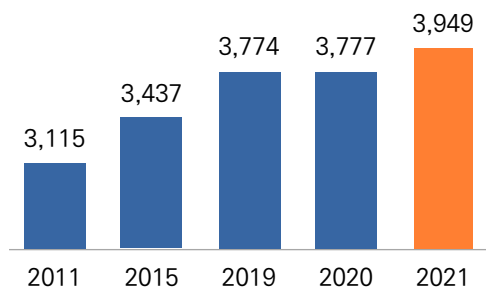
03

[한국의 삶의 질 : 소득·소비·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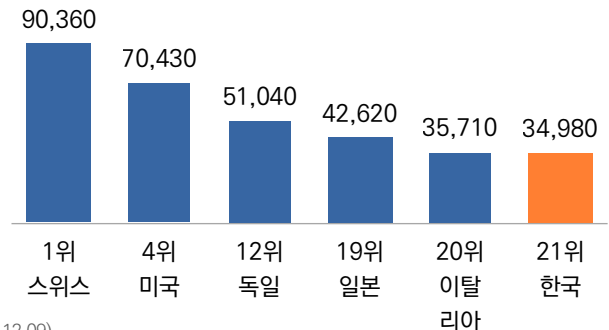
1인당 국민총소득(GNI), 꾸준히 증가 추세

- ▶ GDP는 한 나라의 경제규모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나,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확인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국민총소득을 인구로 나누어 산출되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 per capital)을 통해 물질적 측면에서의 개인의 삶의 질을 살펴본다.
- ▶ 1인당 국민총소득은 2021년 3,949만 원으로 2020년 3,777만 원보다 5% 정도 증가해 2019~2020년 정체 수준에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27% 상승해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 ▶ 한편, OECD주요국(37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GNI)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21위로 일본(19위)보다는 낮았고, 이탈리아(20위)와 비슷한 수준으로 중간 정도 위치해 있다.

[그림] 1인당 국민총소득(GNI)* (만 원)



[그림] OECD 주요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 (2021, 37개국, 달러)



*자료 출처 :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2021.12.09)

** 자료 출처 : KOSIS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1인당 국민총소득(2021 기준, OECD회원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902_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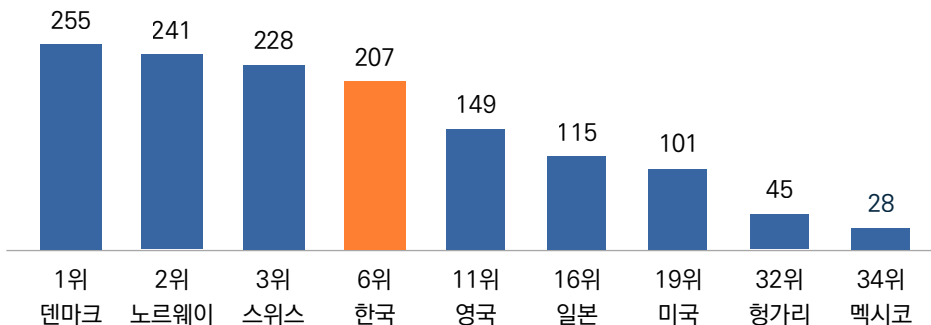
Note1. 국민총소득(실질)은 연평균 물가지수(2020년=100)를 이용하여 산출함

Note2. OECD 평균은 자료 이용이 가능한 38개 국가의 가장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 2021년 한국인, 소득보다 빚이 2배 이상 많다!

- ▶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총부채비율, 즉 가계부채비율이 2021년 207%로 20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가 벌어들인 소득(세금, 사회보험료, 이자비용 등의 비소비지출금액은 제외)에 비해 빚이 2배 이상이란 의미이다.
- ▶ OECD 34개국의 가계부채비율과 비교했을 때도 한국(6위)은 덴마크(1위 255%), 노르웨이(2위 241%) 등 7개국과 함께 가계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상위권에 속했다.

[그림] OECD 주요국 가계부채비율 (총 34개국 조사, %)



*자료 출처 : OECD, Stat, 2022년 12월 인출

**가계부채비율 = (가계부채총액/가구순가처분소득)×100

Note. OECD 평균은 자료 이용이 가능한 38개 국가의 가장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04

[한국인의 삶의 질 : 건강 및 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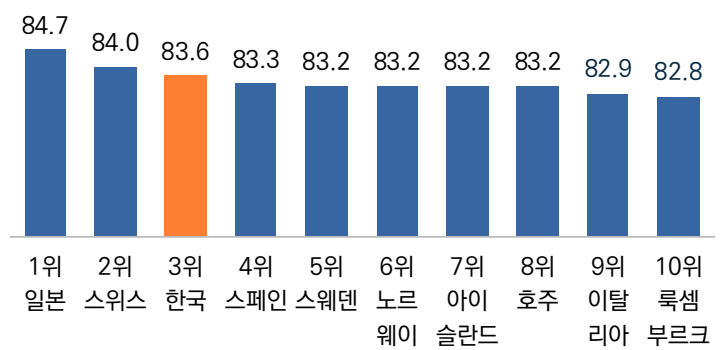
우리 국민의 기대수명, 2021년 83.6세로 꾸준히 증가세!

- ▶ 우리 국민의 기대수명은 2021년 83.6세로 여성(86.6세)이 남성(80.6세)보다 6년 더 사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녀 간 기대수명의 차이는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 ▶ 한국의 기대수명은 OECD 국가 중 3위로, 일본(1위 84.7세), 스위스(2위 84.0세) 다음으로 높았다.

[표] 기대수명 (세)

	전체	여성	남성	남녀 차이
2010	80.2	83.6	76.8	6.8
2015	82.1	85.2	79.0	6.2
2020	83.5	86.5	80.5	6.0
2021	83.6	86.6	80.6	6.0

[그림] OECD 국가 기대수명** (2021, 상위 10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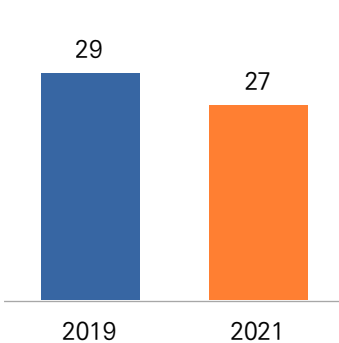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1년 생명표 작성 결과, 2022.12.06
 **자료 출처 : OECD, OECD Health Statistics(2022년 12월 인출)
 Note. 39개 OECD 국가를 조사했으며, 일본, 호주 자료는 2021년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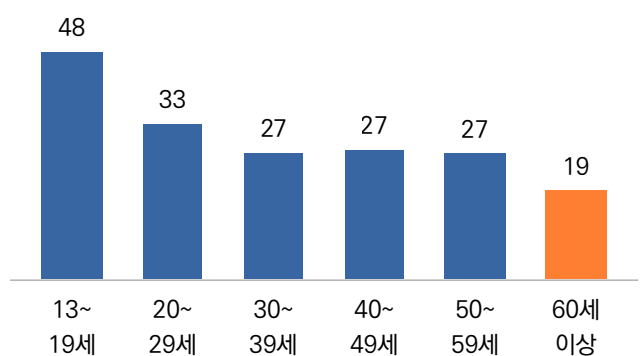
◎ 60세 이상 10명 중 2명만이 여가 생활 만족!

- ▶ 여가활용에 대한 개인의 만족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여가생활에 대해 만족(매우+약간)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21년 29%로 2019년 27%보다 2%p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로 인한 여가 활동 축소로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전체적으로 앞서 설명한 ‘삶의 만족도’보다는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연령별로는 13~19세가 48%의 여가생활 만족도(매우+약간)를 보이는데 반해, 20대는 33%로 15%p나 낮고, 60세 이상의 경우 19%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10대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그림] 여가생활 만족도 (매우+약간 만족**, %)



[그림] 여가생활 만족도 (2021년, 연령별, 매우+약간 만족, %)



*자료 출처 : 통계청, 2021년 사회조사 결과(복지, 사회참여,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2021.11.17
 **5점 척도 질문임

1960년대 우리나라는 ‘잘 살아 보세’라는 한 마디에 국가 정신이 응집되었다. 1970년대 초반 박정희 정권에서 국민소득 1만 달러, 1인당 국민소득 1천 달러 목표를 천명한 이래 이 수치는 1980년대까지 사실상 국가적 목표가 되었다. 오로지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은 1990년대를 지나서 2000년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해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하였다.

‘삶의 질’이 중요해진 배경에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우리나라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서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사회심리학자 에이브럼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생리-안전-사회적(애정)-존경-자아실현’의 5단계의 욕구로 이루어져 있고, 하위 욕구가 충족되면 바로 위 단계 욕구를 충족하려 한다고 보았다.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려온 우리 사회가 2000년대 들어서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해소되면서 문화와 여가, 사회 참여 등 다양한 욕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처럼 인간의 누려야 할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면서 삶의 질이 중요해진 것이다.

삶의 질은 물리적이고 객관적 지표와 정신적이고 주관적 지표로 구성된다. 한국인의 경우 삶의 질과 관련된 객관적 지표는 높은 편이지만 주관적 지표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대수명은 83.6세로 늘어나고 소득도 크게 늘어나서 객관적 지표는 향상되었다. 그러나 물리적 조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삶의 질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행복지수는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이고, 자살률은 OECD 국가 평균의 2배가 넘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으며, 사회적 고립도는 OECD 국가 4위에 오를 만큼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현실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낮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우리나라 삶의 질이 높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한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의 취약함, 물질주의와 집단주의 가치의 만연, 사회적 비교에 따른 좌절감, 심화된 경쟁으로 인한 불안정성 등에 기인한다고 한다. ‘사회적 지지’란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의미하며 ‘물질주의’는 만족을 모르는 ‘돈’에 대한 탐욕, ‘집

단주의’는 개인의 개성을 집단의 이름으로 억누르는 사회 문화, ‘사회적 비교’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강요당하는 현실, ‘심화된 경쟁’은 경쟁 사회에서 탈락하면 다시 복귀하기 어려운 사회 현실에서 받는 상시적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을 지칭한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질이 저하된 이유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며 사회적 가치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첫째로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삶의 의미를 두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와 세계를 해석하는 틀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달라지게 된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사회적 조류에 휩쓸려서 살아가게 되며 자기 삶에 만족하지 않게 된다. 반면에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 사람은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으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둘째로 교회는 공동체를 제공해 준다. 교회 공동체는 같은 신앙적 가치를 공유하고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는 가치 공동체이고, ‘사랑’이라는 관계를 본질로 갖고 있는 사랑 공동체이므로 이 공동체 안에서 개인은 파편화된 존재를 넘어서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현대인들은 자기의 개성을 간섭받지 않는 생활을 지향하면서 극단적인 개인주의 성향으로 가고 있다. ‘남에게 도움받지 않고 나도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극도의 분리적 관계가 만연한 시대에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 그리고 그로 인한 우울증, 정신적 어려움은 공동체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다.

신앙은 세계를 해석하는 틀이며, 그 틀에 기초하여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세상 사람들이 안락함에서 만족을 얻는다면 신앙인은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면서 만족을 얻는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삶의 질이란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안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것이 신앙인이 추구하는 삶의 질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세상적으로 측정되는 삶의 질 영역 너머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1) 한준, ‘한국인 삶의 질의 사회적 결정요인’, 『국정관리연구』, 10권2호(2015)

1.[AI의 업무 대체 예상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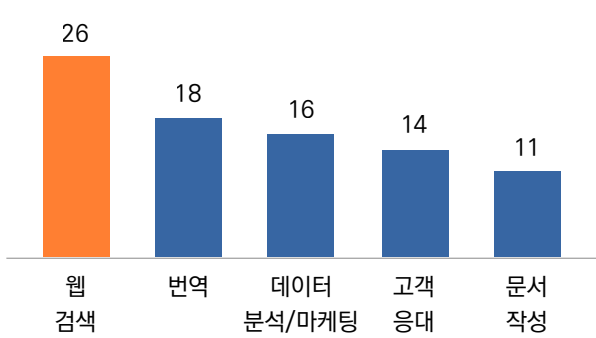
2.[한국의 소득 양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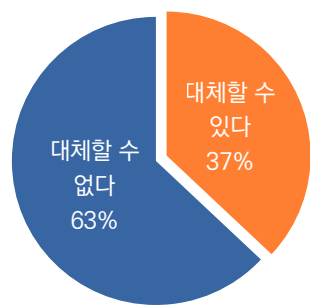
우리국민 37%, 챗GPT가 나의 업무 대체할 수 있다!

- ▶ 지난주 넘버즈 186호 [챗GPT에 대한 목회자의 인식과 사용 실태 조사]에서 '향후 인공지능 설교자의 출현'에 대해 무려 85%의 목회자가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렇다면 AI가 대체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은 어디까지일까? 최근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챗GPT가 가장 많이 활용될 것 같은 분야는 '웹 검색'이 2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번역'(18%), '데이터 분석/마케팅'(16%) 순이었다.
- ▶ 챗GPT가 '나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3명 중 1명 이상(37%)이 '대체할 수 있다'라고 응답했다.

[그림] 챗GPT가 가장 많이 활용될 것 같은 분야 (상위 5위, %)



[그림] 챗GPT의 '나의 업무' 대체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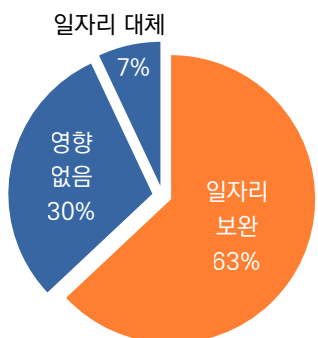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나우앤서베이, 1,331명 패널 조사, 2023.2.27. (https://www.nownsurvey.com/board/hotissue/view/wr_id/170/ptype/all/st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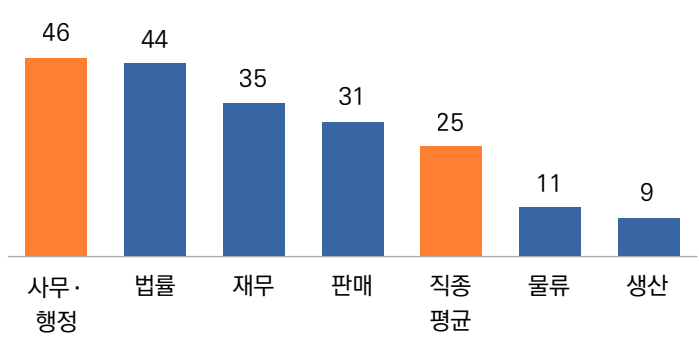
◎ 골드만삭스 미래 예측, 현재 업무의 1/4이 AI(자동화)로 대체될 수 있어!

- ▶ 최근 눈부시게 발전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미국에 존재하는 일자리 70%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예측이 나왔다. 사무·행정직이 AI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일자리로 지목됐고, 현장 생산직(블루칼라)은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측됐다.
- ▶ 구체적으로 골드만삭스는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미국 일자리의 7%를 대체하고 63%는 보완하며 나머지 30%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는데, 미국 노동 시장에서 이뤄지는 작업 가운데 평균 25%는 AI 자동화로 대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무·행정' 업종은 무려 46%가, '법률' 업종은 44%가 AI 자동화로 대체될 것이라고 예상됐다.

[그림] 챗GPT(생성형AI)의 일자리 대체 영향 (미국 기준)



[그림] 인공지능 자동화로 인한 업종별 작업 대체 비율 (주요 직종, 미국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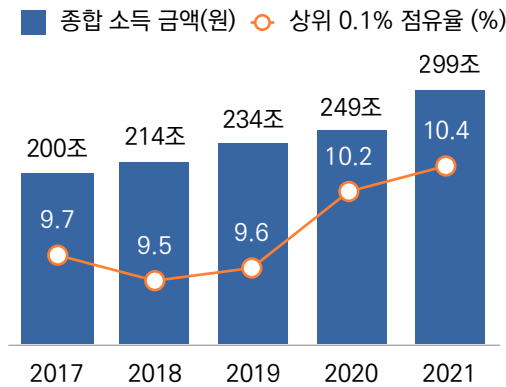
*자료 출처 : Goldman Sachs Global Investment Research, 2023.3.26.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32813430004654?did=kk>)
 **O*NET(미국 노동부 직업정보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직종 및 산업별로 AI에 의한 노동력 절감 자동화에 노출되는 전체 업무의 비중 추정



한국의 상위 1% 소득자, 전체 소득의 24%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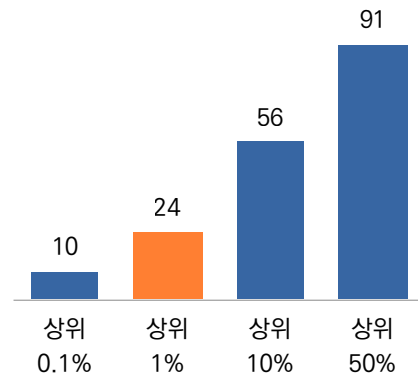
- ▶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종합소득금액은 코로나19 유행 초기 증가세가 높지 않았지만, 2021년 들어 크게 증가했는데, 그중 상위 0.1% 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 2021년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상위 0.1% 소득자가 차지하는 소득의 비중은 10%이며, 상위 1%는 24%, 상위 10%는 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총 종합소득금액과 상위 0.1% 소득자의 점유율 변화



*자료 출처 : 국세청, 2017~2021 종합소득 천분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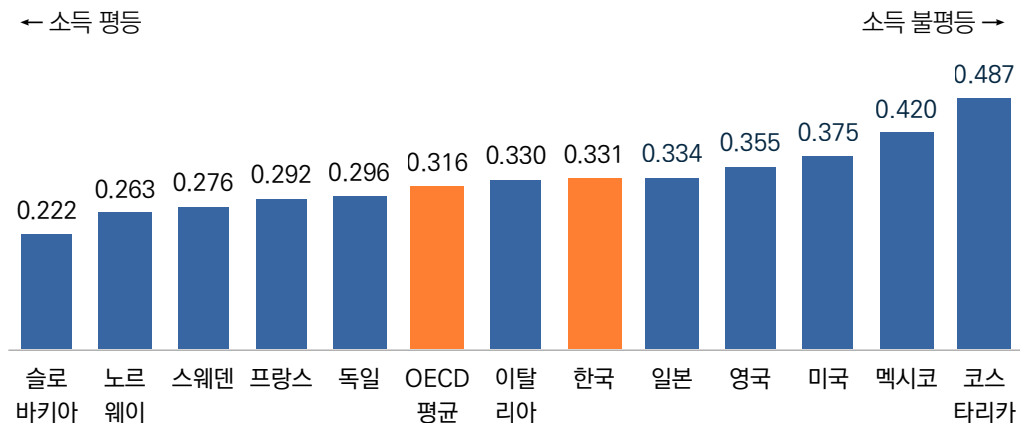
[그림] 전체소득에서 상위 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율 (2021 종합소득세, %)



◎ 한국의 소득 불평등 지수, OECD 평균보다 높아!

- ▶ 그럼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다른 나라에 비해 어떨까? '지니계수'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비율을 통해 소득불균등 정도를 계산할 때 쓰이는 계수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OECD 주요국의 지니계수를 보면 한국은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으로 OECD 주요국에 비해 소득이 불평등한 편에 속해있다.

[그림] OECD 주요국의 소득 불평등 지수 (지니계수)



*자료 출처: OECD data (2018~2021년 각 국가 자료 취합) (<https://data.oecd.org/inequality/income-inequality.htm>)

교회 성장을 예측할 수 있는 4가지 요소

(4 Factors That Predict Church Growth)

‘아론 얼스’(Aaron Earls)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수석 에디터
(라이프웨이 리서치 뉴스레터, 2023. 03. 22)

많은 교회에는 수적 성장의 기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으로는 교회 건물 근처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도시 한복판에 있는 시골길에 있는 상관없이 대부분의 교회는 비기독교인과 타락한 기독교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는 미국 개신교 목회자와 교인 대다수가 한 달에 두 번 이상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정규 교인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Pew Research’와 ‘Gallup’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미국인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에 따르면 2022년 8월 현재 미국 개신교 교회의 평균 출석률은 팬데믹 이전 대비 85%에 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 6명 중 1명(17%)은 팬데믹 기간 동안 교회가 성장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는 소그룹 참여, 전도, 제자 훈련, 성도의 교회 정착에 초점을 맞춘 교회 건강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교회 성장을 예측하는 네 가지 요인을 발견했습니다. 미국 개신교 목회자를 대상으로 지난 5년 동안 평균 예배 참석률 및 교회에 관한 다른 질문들을 통해 파악한 네 가지 요인입니다.

네 가지 예측 요인은 ‘전도’, ‘동화(同化)’, ‘소그룹 제자 훈련’, ‘교회 규모’입니다.

1. 전도와 결신

지난 12개월 동안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당연한 질문이지만,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는 교회일수록 수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원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미국 개신교 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평균 15명의 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그보다 훨씬 적은 숫자를 보였습니다. 교회 3곳 중 2곳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 10명 미만이었으며, 이 중 17%는 교회를 통해 새로운 결신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배 참석률을 높이려고 하는 교회는 전도에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새로운 헌신이 없었다면 올해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헌신을 우선순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목표가 네 가지였다면 열 가지를 목표로 하십시오. 교회에서 차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비기독교인이 살고 있다면 성장의 기회가 있습니다.

2. 새신자 교회 정착

새신자가 교회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비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성장을 원한다면 새신자들이 적극적인 참여자로 전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교회의 조직에 녹아들게 하십시오.

평균적으로 새신자의 79%가 교회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절반 이상의 교회(56%)가 지난 한 해 동안 새신자 모두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긍정적인 점은 지난 15년 동안 어느 때보다 새신자를 모두 유지했다고 답한 교회가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작은 교회나 더 적은 수의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교회가 유리한 영역입니다. 실제로 대형 교회는 지난 12개월 동안 새신자를 모두 지켰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낮았습니다(35%).

새로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이 교회의 일원으로 환영받는다 느끼게 할 수 있는 작은 교회는 새신자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소그룹 제자 훈련

현재 주일 예배 참석자 중 몇 퍼센트가 소그룹, 주일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그룹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했고 그들이 교회에서 편안함을 느낀다면, 중요한 다음 단계는 그들을 소그룹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그룹에 참여하는 예배 참석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교회가 예배를 성장시키고 늘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그룹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예배 참석자의 평균 비율은 2008년 50%에서 현재 44%로 낮아졌습니다. 현재 교회 출석자 중 1/4 미만이 소그룹에 속해 있다고 답한 교회의 비율(24%)은 2008년(17%)보다 증가했습니다. 5곳 중 1곳(19%) 정도의 교회만 출석자의 75% 이상이 소그룹 참여자라고 답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것이 소규모 교회의 약점입니다. 예배 참석자 수가 50명 미만인 교회는 참석자 중 25% 미만 이 소그룹에 참여한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39%).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원한다면 소그룹에 참여하는 교인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4. 교회 규모

현재 예배 참석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전도하고, 새신자를 정착시키고, 소그룹에 참여하도록 하는 교회는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은 자기 반복적인 순환입니다. 교회 규모가 교회 성장 예측 요인인 이유는 이러한 교회가 이미 성장에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020 Faith Communities Today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교회는 매주 평균 65명이 모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교회는 점점 작아지고 있지만, 교인은 더 큰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 10곳 중 7곳은 매주 예배 참석자가 100명 이하인 반면, 교회 신자 10명 중 7명은 매주 250명 이상의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작은 교회가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지난 15년 동안 대형 교회가 성장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나타낼 뿐입니다. 일반적인 규모의 교회는 처음 세 가지 요소, 즉 새로운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참여시키고, 소그룹에 연결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현재 교회의 규모에 관계없이 이 세 가지 요소에 헌신하고 성공하는 교회는 미래에도 건강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원자료 출처 : Lifeway research, 4 Factors That Predict Church Growth, 2023.03.22
(<https://research.lifeway.com/2023/03/22/4-factors-that-predict-church-growth/>)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37호 \(2023년 4월 1주\)](#)

- 내년 총선 결과 기대, 지역구 국회의원 교체 의향,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 사회 일반

[부자 MBTI엔 'T' 'J' 많았다...그중에서도 수퍼리치는 '이것'](#)

중앙일보_2023.04.09.

[사과 5개, 사탕 1봉지 슬쩍...배고픈 '노인 장발장' 자꾸 는다](#)

중앙일보_2023.04.10.

[출산을 끝까지 한국에 번성하는 산후 조리원, 사치인가 한국적 대안인가](#)

조선일보_2023.04.09.

[데이터로 본 봄 나들이 하기 좋은 국내 힐링 여행지 '의외의 1위'는?](#)

문화일보_2023.04.08.

[부동산 큰손 '중국인' 돌아오나...3월 서울·경기 부동산 외국인 매수 63% 급증](#)

매일경제_2023.04.07.

◎ 경제 / 기업

[MZ직장인들이 꼽았다... 이상적 상사 유형 1위는?](#)

조선일보_2023.04.04.

[MZ세대가 취업하고 싶은 기업은...37% '워라밸 보장'·30% '월급'](#)

연합뉴스_2023.04.10.

[“근태 좋은 시니어가 낫다”...美기업들 중장년 채용 열풍](#)

조선일보_2023.04.08.

[회사 기밀유출 범인 둘 중 하나는 '퇴직자'](#)

매일경제_2023.04.05.

[\[국가결산\] 작년 국가부채 2천326조, 131조 ↑ ...연금부채 1천181조](#)

연합뉴스_2023.04.04.

◎ 건강 / 환경 / 국제

[아침에 30분만 '이 운동'... 혈압 낮춘다](#)

헬스조선_2023.04.08.

[기후변화 관련 인식](#)

갤럽리포트(WIN 다국가 조사)_2023.04.06.

[러시아인 10명 중 8명은 푸틴 신뢰...지지율 77.9%](#)

국민일보_2023.04.08.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기독교 / 종교

[기독교 청년 삶·가치관 바꾼 성경공부 방식은... ①QT ②소그룹 ③성경통독](#)

[더미션\(국민일보\)_2023.04.05.](#)

[종교적 성향과 실재에 대한 인식](#)

[갤럽리포트\(Gallup International 다국가 조사\)_2023.04.04.](#)

[성범죄 목사 80명 후속 조치 점검했더니... "교단 내 징계 1명"](#)

[연합뉴스_2023.04.04.](#)

[챗GPT 사용 목회자 81% "챗GPT 결과 신뢰한다"](#)

[기독신문_2023.04.05.](#)

[목회자 5명 중 1명꼴 "챗GPT로 설교 준비 경험"](#)

[더미션\(국민일보\)_2023.04.05.](#)

[목회자 42% "챗GPT, 설교 준비 도움됐다"](#)

[뉴스시스_2023.04.07.](#)

[설교 준비·영상예배 자막... 세계 교회, AI 활용 고민](#)

[더미션\(국민일보\)_2023.04.06.](#)

◎ 기획기사 : 한미동맹 70년 상호인식 조사, (동아일보)

['韓 자체 핵보유' 한국인 64%-미국인 41% 찬성 _2023.03.31.](#)

[한국인 83%-미국인 44% "美 반도체법, 韓 이익도 고려해야" _2023.03.31.](#)

[경제 최우선 협력 분야, 무역-첨단기술順 _2023.03.31.](#)

[미국인 46% "6·25파병 잘한 일"... 韓 81% "美인식에 긍정 영향" _2023.04.01.](#)

["美서 전쟁나면 국군 파병" 한국인 69%... "韓서 전쟁나면 미군 파병" 미국인 44% _2023.03.31.](#)

[한국인 80%-미국인 66% "상호방위조약 韓평화 기여" _2023.03.31.](#)

[한국인 70% "日 비호감" 미국인 77% "日 호감" _2023.03.31.](#)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대구칠곡교회, 대덕교회, 대전선창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맑은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빛과소금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종로),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세광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하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동동부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잠실교회, 정읍성광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미요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시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안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목회, 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 광주지식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 후원 기업 |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주)마뜨, 메가리서치, (주)삼신테크,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웨슬리퀘스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가나다 순)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후원 명단 안내 |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 신규 후원 |

장유대성교회(담임목사 박상건)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일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 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명민, 송예슬, 김찬솔, 한미경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일연합선교회

미주지역 :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2023 대한민국 출산돌봄 컨퍼런스

우리 연구소의 후원교회인 당진동일교회에서 '대한민국 출산돌봄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 시 : 2023년 4월 17일(월) ~ 19일(수)
장 소 : 당진동일교회
주 관 : 당진동일교회 / 뉴욕프라미스교회
참가자격 : 담임목사(부교역자 동반가능)
신청문의 : 041-355-0757 / 010-9017-8291



신청접수

제1회 한빛누리재단 민족화해 공모사업

우리 연구소와 협력기관인 (재)한빛누리에서 한국사회 평화통일 감수성 향상 및 한민족 디아스포라 화해를 목적으로 '민족화해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3년 4월 1일 ~ 30일

지원대상 : 3인 이상 개인으로 구성된 팀

지원규모 : 팀 당 최대 3백 만원

신청서식 : [한빛누리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혹은 QR코드 접속 후 게시글 참조



문의사항 : 02-924-0240 (ARS 3번) 민족화해사업팀